

부르심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가족은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시 104:15은 포도주를 가리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이 고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없다면 잔치는 더 이상 잔치일 수 없습니다.

가족은 존재 자체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족은 기쁨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책에는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가족을 가리켜 '가(면 갈수록) 죽(쇄가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더 이상 잔치일 수 없듯이, 기쁨이 없는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이 아닙니다. 모일 때마나 다툼과 갈등, 분열과 대립, 증오와 비난이 난무하다면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지옥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기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혼인 잔치에 제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쁨을 상실한 뻘했던 혼인 잔치에 기쁨이 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 우리의 가족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가정만이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세상의 온갖 위기 가운데에서도 모든 가족이 편안히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랑과 안식의 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모신 가정만이 진정한 기쁨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명절을 맞아 다시 한 번 우리 가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셔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이름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항상 우리 가정과 가족들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New Year Worship

기독교대한성경교회
한누리교회

설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목 상 기 도	다	같	이
사 도 신 경	다	함	께
찬 송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	함
기 도	말	은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2:1-12	사	회
말 씬 가정, 축복의 통로요 기쁨의 공동체!	말	은
찬 송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
주 기도 문	다	함

가정, 축복의 통로요 기쁨의 공동체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자, 그분의 통치와 사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성경 속 인류의 이야기가 남자(아담)와 여자(하와)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 역시 한 가정의 출발을 알리는 혼인 잔치에서 그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웅변해줍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는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 예식은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축제였으며,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신랑 측은 하객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할 신성한 의무가 있었으며, 이는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문헌에 따르면, 잔치 도중 포도주가 부족해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 경우, 신랑 가족은 단순히 무능하다는 비판을 넘어 손님들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법적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 그 자체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사실은 그 가정이 누리던 기쁨의 근원이 고갈되었으며, 마을 공동체에서 극도의 수치를 당할 운명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화목을 꿈꾸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 경제적 파탄, 관계의 단절이라는 '포도주 고갈'의 순간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우리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오만을 깨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가나의 잔치집이 그랬

던 것처럼, 기적은 항상 우리의 자원이 바닥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포도주가 넉넉했다면 예수님은 그저 잔치에 참석한 한 명의 손님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핍이 발생했기에 그분은 비로소 우리의 삶,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이 시간, 요한복음 2:1-12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가족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음료가 없으니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족이 겪게 될 사회적 어려움과 법적 위기를 직감했기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누군가 아픔을 겪거나 신앙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할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을 책망하거나 혼인 잔치의 주인공 신랑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결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문제를 의탁했습니다. 2026년 설날, 우리 가족이 서로를 대할 때 필요한 것은 상대의 결점을 지적하는 비평가의 눈이 아니라, 결핍을 주님께 아뢰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대'라고 말씀하시며 완곡하게 거절을 표하셨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해 두었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표적을 행하도록 돕는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신랑이나 신랑 측 가족들, 나아가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 중 누군가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닥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은 마리아가 행했던 것처럼 다른 가족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예수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로 인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듯이, 다른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어려움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바로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서로를 위한 축복의 통로, 중보기도의 통로로